고사성어 익히기

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매주 무료로 배포되는 만화 한자 학습지 '맛있는 한자'에 소개된 고사성어입니다.



고사성어 곡학아세 자신의 뜻을 굽히면서까지 세상에 아부하여 출세하려는 태도나 행동

曲 學 阿 世

굽을 곡 배울 학 아첨할 아 세상 세

중국 한나라 6대 황제인 경제는 어진 선비를 찾다가 원고생이라는 시인을 등용했습니다. 원고생은 90세의 고령이었으나 직언을 잘 하는 선비로 유명했습니다. 당시 함께 등용된 학자 공손홍이 원고생을 늙은이라고 깔보고 무시하자 원고생이 "올바른 학문에 힘써 세상에 알려 주게. 배운 것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네"라고 말한 데에서 곡학아세가 비롯되었습니다.

曲 曲 曲
굽을 곡

學 學 學
배울 학

阿 阿 阿
아첨할 아

世 世 世
세상 세

고사성어 속수무책 손이 묶인 것처럼 어찌 할 도리가 없이 꼼짝 못 함

束 手 無 策

묶을 속 손 수 없을 무 꾀 책

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렸으나 헤쳐 나갈 묘수가 없는 답답한 상황을 이릅니다. 비슷한 뜻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 온갖 계교를 다 써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한다는 '계무소출(計無所出)'이 있습니다.

束 束
묶을 속

手 手
손 수

無 無
없을 무

策 策
꾀 책

束 手 無 策